

인문대학의 미래와 미래의 인문학¹⁾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혜숙

한국 대학의 미래를 전망해 볼 때 떠오르는 색깔은 회색빛이다. 어둡지도 밝지도 않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이유는 대학의 미래가 우리 스스로에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10년 후에는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 대학 정원의 1/3 정도가 비게 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태를 맞아 대학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사회적 파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교육부에서는 특성화를 내세웠다. 특성화 전략의 의도는 일괄적으로 하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 대학들

¹⁾ 본 글은 2014년 5월 9일 이화여자대학교 이삼봉홀에서 한국인문학총연합회 주최로 열렸던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슈진단 및 분석

을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들마다 특성화를 바탕으로 해서 경쟁력 없는 다른 부문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인문학자로서 대학의 변화를 바라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인문대학의 위축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으나, 앞으로 예상되는 파고를 생각하면 인문대학이 맞이할 도전은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사회 안에서 역설적으로 길 위의 인문학은 번성하고 있으나 인문대학은 매우 위축되어가고 있다. 1996년 대학 학장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인문학의 위기 선언 이후 20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대학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철학과의 경우에는 폐과, 통합, 과 이름 변경 등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야기하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아볼 수 있겠다.

1. 낮은 취업률, 모호한 취업 분야
2. 과학기술 분야나 경영학과 같은 분야에 비해 비전문적으로 보이는 지식능력
3. 표준화시키기 어려운 전공지식
(졸업 시 기대되는 혹은 향상되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일반 인식)
4. 인터넷 상의 인문학 정보가 범람하는 속에서 대학인문학의 특성이 불분명해짐.
5. 전문화된 인문학의 사회적 적합성 모호(읽히지 않는 전문적 인문학 논문과 저서들)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실질적으로 대학의 인문학은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직업적 능력과 실용적 학문을 대학에서 키우는 데 힘을 쏟았던 미국의 대학들에서도 인문학은 기초학문으로 중시되었다. (자연과학의 기초와 예술 부문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인문적 지식은 현실과 동떨어진 지식을 위한 지식의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문학, 역사, 철학, 수학, 과학 등의 훈련이 가진 효용은 다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직업적 능력은 이러한 인문 지식 위에 세워졌을 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었다. 대학 교양교육의 이념은 이런 배경 하에 생긴 것이다. 그러나 고도의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기초학문, 특히 인문학 전공을 선택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교육부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으로 인문대학들은 매우 불안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의 정원은 늘리고 그렇지 않은 전공의 정원은 줄이고 싶은 대학의 욕구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 이 여파는 수도권과 서울의 주요 대학에까지 미치리라고 본다. 구조조정이 무차별적으로 인문대학의 위축, 나아가 인문학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의 인문대학들이 앞으로 갈 길을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인문학에 대한 요구와 인문대학에 대한 요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글을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담화와 토론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은 대학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다양한 형태의 교양교육은 대체로 이런 능력의 함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인문대학 없이 이러한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을 수 있다. 인문대학은 인문학 전공자를 키우기 위한 것으로 좀더 전문적 차원의 인문학 교육을 목표로 삼는다. 과학기술 사회로 이전하기 이전에는 사회의 전문인력들은 인문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다. 이 때에는 인문학 전공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도 상대적으로 넓었다. 모든 4년제 대학들에 인문대학이 있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었으며 인문대학의 설치는 대학의 학문적 균형을 갖추는 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학들의 목표와 비전이 다양화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 혹은 실용에 중심을 두는 대학들이 목적에 부합하는 상이한 학사구조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인문대학의 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본다. 대학들 사이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은 인문대학의 위상에 차별화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인문학은 인간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대학에서는 인문학 교사와 교수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가진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사이의 분화는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인문 대학원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은 한국 인문학의 자생력 확충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며 인문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인문 대학원은 인문학 분야 교수를 배출하고 인문학 연구기반을 비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대학원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대학원 졸업생들의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인문대학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 학부를 가진 모든 대학들이 대학원 과정과 박사과정을 운영할 필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대학들의 선택이 중요해질 것이다. 또 한편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문학 분야를 개척해 대학원 과정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지역학 분야는 주로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인문학자들이 언어와 역사, 철학, 종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지역학 자체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인문대학과 사범대학 간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인문학도들의 원래 역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교사였다. 그것은 인문학이 전적으로 인간을 만드는 일에 관여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학의 전문화와 함께 교사 양성을 위주로 하는 사범대학이 교사 육성을 전담함으로써 인문대학은 순수학문에 종사하는 곳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사회가 근대화하는 과정 안에서 폭증하는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사범대학이 담당해왔

이슈진단 및 분석

다고 볼 수 있고 사범대 모델은 어느정도 성공을 이루었다고 본다. 이제 시대가 변하여 교사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상의 정보가 엄청난 양으로 축적되고 있고 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문대학 졸업생들은 구조적으로 공교육의 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서 많은 숫자가 사교육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 안에서 학교와 교사 역할에 대한 재정의와 함께 인문대학과 사범대학 간의 높은 경계설정에 대해 우리는 재고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어떤 인간이 되기를 바라며, 그들을 교육할 미래 교사들은 어떠한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교사가 지식을 주로 전달해주던 과거의 모델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 가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 간의 면(面) 대(對) 면 소통은 더욱 중요해지고 학생 개개인의 인간적, 교육적 역량을 이끌어내고 배움과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동기유발을 하는 측면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인문학이 교육에 좀더 깊이 개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시대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3. 학문 경계의 유동성과 학부 교육의 통합성이 실험되어야 한다.

학문이 고도로 분화됨과 함께 학문 간의 유동과 경계이동이 매우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 복잡해지면서 어느 한 분야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게 되었다. 학문 간의 협동이 필수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 학문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대학 편제 구성은 그 적절성을 의심받고 있다. 인문대학과 사회대학, 자연대학, 공과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등의 대학 간, 혹은 학문 간 벽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높게 구축되어있다.

교육부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문·이과 통합을 목표로, 그에 따른 교과과정을 개편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등학교에서의 문·이과 통합은 대학교육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 시대는 문과생들에게도 자연과학 지식과 수학, 통계, 컴퓨터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집단적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과생들도 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글쓰기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역사의식과 사회의식 또한 문·이과를 통틀어 성숙한 시민사회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과학기술 시대라고는 하나 인간과 인간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창의적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이에 대학의 학부 교육 또한 통합학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통합학부(College of Liberal arts & Sciences)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학부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실험하고자 한 바 있다. 자유전공학부 또한 이런 실험의 일환이다.

4. 인문학 관련 융합 전공분야를 개발해야 한다.

인문대학은 오래된 학문 분야로서 문학 관련 학과, 역사과, 철학과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전통적 학과 이외에 다양한 융합 전공 분야를 개발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디지털 인문학 : 정보과학 기술의 발달은 이제 글쓰기, 책읽기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고 있다. 시각영상매체의 발달은 인간 간 소통의 방식을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제껏 문자를 중심으로 한 사고발전으로부터 영상을 매체로 하는 소통의 방식, 문자와 소리와 영상을 구분하지 않는 디지털 언어의 특성을 반영하는 디지털 글쓰기,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는 가상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디지털 인문학에 새로운 길을 터주어야 한다.
- 지역학으로서의 인문학 : 글로벌화한 시대에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껏 언어와 문학에 치중했던 인문학 분야를 좀더 확장하여 지역 문화 연구를 포괄하도록 한다. 지역학으로서의 인문학 개념을 확대하는 일은 인문대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학, 동아시아학, 유럽학, 라틴문화학, 아랍문화학, 아프리카학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문화학 : 이제껏 문화학은 사회학, 인류학 분야에 속해 있었다. 사회가 다양화하면서 문화 분야가 매우 복잡한 다양성을 띄게 되었다. 언어와 문학(시, 소설에 집중) 연구로부터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공연문화 부분과 예술문화를 인문적 관점에서 포괄하는 문화학의 영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종이 텍스트 대신 문화 현상 자체를 텍스트로 삼는다면 문화학이야말로 인문학자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 치료인문학 : 문학치료, 철학치료, 의료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가 출현하고 있다. 인문학이 인간의 내면과 주관성에 관여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치료인문학 분야의 개척은 인문학자들의 책임이라 볼 수 있다.

5. 평생교육과정, 기초인문학 과정을 개발하여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 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학생 연령층은 주로 20대에 몰려있다. 그러나 사회변화가 빨라지고 지식의 생산과 소비가 빨리 진행되는 오늘날 평생교육은 사회 안에 일반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앞으로 평생교육의 차원은 더 확대되리라 본다. 전문 기술이나 전문 지식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겠지만, 인문학에 대한 요구 또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늘어나리라고 본다. 어쩌면 인문학은 성인들에게 더 강한 배움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학문영역일 것이다. 또 타 학문 전공자들이 인문학 지식 일반에 대한 교육요구를 갖게 되는 일도 빈번해질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인문학 교육 요구에 대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불필요한 경쟁의 논리를 배격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어떤 분야건 등수를 매겨 한 줄로 세우는 일에 익숙해 있다. 심지어 이미 가수로 공인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직업가수들을 모아 등수를 매기는 일에 온 사회가 열광한 일도 있다. 대학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맹목적인 점수화와 서열화에 매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문 분야의 특성을 불문하고 논문 수로 점수를 매겨 포상하는 제도를 지금 웬만한 대학들은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인문학 분야에서도 무조건 많은 편 수의 논문을 쓴 사람에게 높은 인센티브와 우수 연구자 상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학문 분야별, 전공 분야별 특성이 있을 것이다. 불필요한 논문 수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학문의 상황을 왜곡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런 불필요한 경쟁의 문제는 학생들 교육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학생들은 성적에 매달려 실상 공부하는 즐거움도, 지적 성찰이 주는 아름다움도 경험하지 못한 채 대학을 나서고 있다. 지적 호기심을 추구하려는 실험적이고 창의적 정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평가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적어도 주관적 평가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인문학 분야의 성적과 교양과목은 최상위 10% 정도만 빼고 통과/불통과 (Pass/Fail)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 사람의 성숙한 인간이 만들어지기 위해 대학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20세를 전후한 시기의 인간능력의 가능성과 인간성장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말이다. 이 시기에 모든 가치가 도구적 가치로 성립하는 현실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 인간의 미래를 위해 어떤 창의적 생각과 일에도 모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사고파는 일이 아니다. 이 일에는 인간이 개입되어있고, 인간의 미래가 개입되어 있다. TV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서 일등 한 가수가 더 훌륭한 가수일 수 없듯이, 무한 경쟁에 내몰린 인간의 성취는 대체로 무의미한 것일 수 있다.

필자소개

김혜숙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기독교학과에서 철학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시카고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스크랜튼대학장, 한국철학회장, 세계여성철학대회 조직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위원과 한국인문학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식론/철학방법론을 비롯해 여성철학, 예술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칸트: 경계의 철학, 철학의 경계』, 『예술과 사상』(공저), 『新음악론』 등이 있으며, 이외에 「철학의 두 길: 선험적 방법과 변증법」, 「한국 인문주의 예술론 정립을 위한 시론」, 「유기적 관계중심성과 자아의 분열」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